

“5년 내 매출 100조 목표… HD현대 특유 추진력 발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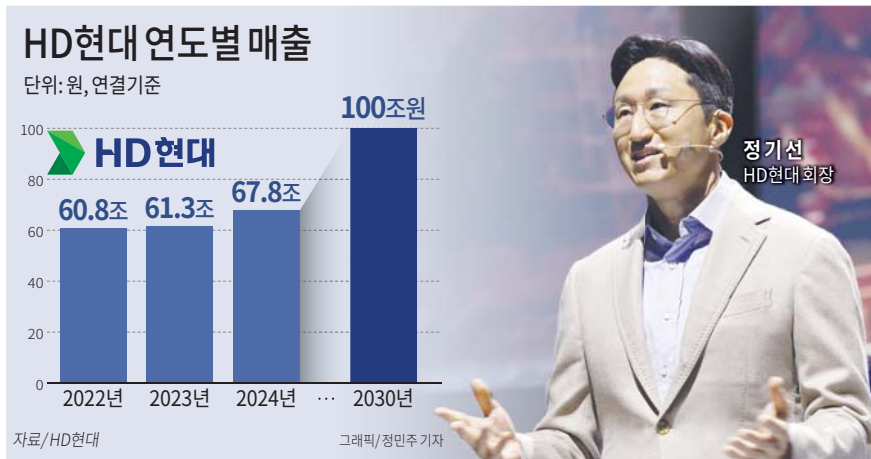
2030 중장기 성장전략·로드맵

정기선 회장 등 경영진 32명 참석
조선·건설기계 등 전사업 전략 점검
조선분야 합병, 시너지 극대화 계획

HD현대가 오는 2030년까지 그룹매출로 100조원을 달성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했다.

HD현대에는 3,4일 이틀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정기선 회장을 비롯한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오일뱅크 등 계열사 사장단 및 주요 경영진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선 발주 사이클 둔화, 미국·유럽·중국 등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현지화 정책 강화, 주력 사업에서 중국 등 경쟁기업의 거센 추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기선 회장은 취임후 처음 가진 그룹 전략회의에서 “지금 우리 그룹의 변화와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주력 사업들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리더들부터 HD현대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그룹의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에는 회의를 통해 조선·건설기계·에너지·신사업 등 전 사업 부문의 전략을 점검하고, 친환경·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해 향후 5년 내 그룹 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지난 1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회사는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내년 1월 1일 통합 법인 ‘HD건설기계’로 출범한

다. HD건설기계는 제품 라인업을 최적화하고 지역별 생산체계를 전문화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콤팩트 장비 사업을 확대해 콤팩트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건설장비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유·석유화학 부문은 원가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전력기기 부문은 생산능력 확대와 중·저압 차단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동시에 로봇틱스, 자율운항, 전기추진, 연료전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미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미래 성장 로드맵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천 의지”라며 “내년을 기점으로 전 사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車·부품 관세 15% 적용 美, 관세율포 개정안 공식 현지시간 4일 정식 게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나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A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포(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총속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10조+ α’ 산업-금융 공동 ‘제조업 AX투자’ 시동

산업부-금융위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 등 기업
기업·산업·KB국민은행 등 총출동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조업 AI 전환(AX) 투자를 위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체계 구축에 공식 착수했다.

제조 AX 분야에서만 10조원+ α의 투자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민간의 프로젝트를 직접

연결해 산업-금융 공동 투자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덕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과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총출동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과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산업금융 프로젝트다. 특히 30조원 이상을 AI 전환(AI Transformation) 분야에 투자하기로 해 M.AX 얼라이언스의 주력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하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자율주행·AI팩토리 등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관 연합체(1000여개 기업 참여)다. 산업부가 1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 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6조원, AI반도체 1.5조원, AI팩토리 1.3조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구체적인 AX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국민성장펀드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 로봇 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또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 공정 AI로봇 도입 등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풀었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 금정산,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

멸종위기종 14종 포함 총 1,782종의 야생생물 서식,
문화유산 127점을 보유, 백양산을 포함한 금정산은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입니다.
금정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금정산국립공원: 총 면적 66.859km²(백양산 포함)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